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 새해 첫 방문지
장애등급부양의무제지 국민행동
광화문 농성장관계자 마음 녹여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를
기조로 세운 종단의 새해 첫 걸음이 장애인 차
별 반대를 외치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스님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역 해치마당
을 찾아 장애인, 노숙자 등 복지사각 지대에 놓
인 사회 약자들을 가까이서 만났다.

총무원장 스님이 올해 첫 ‘자비나눔’ 방문지
로 택한 곳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
지를 요구하며 1616일째 농성중인 ‘장애등급
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농성장. 총무원
장 스님은 먼저 광화문지하역사 환권에 마련
된 분향소를 찾아 장애와 빈곤으로 목숨을 잃
은 영정 앞에 섰다. 총무원장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신체의 장애와 가난이 인간의 존엄과 소
중한 삶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평등
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
고 삶의 극단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은 우
리 사회,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알아야 한다”
고 애도했다.

이어 농성장 안으로 자리를 옮겨 추운 날씨
속에서 빈곤, 장애, 노숙자 단체 대표들과 이야
기를 나눴다. 총무원장 스님은 “길고도 외로운
투쟁에 종단 또한 함께 하겠다”며 “장애와 빈
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평등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
고 격려했다. 스님의 따뜻한 격려에 1616일째
열어붙었던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비밀 언덕”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박김영희 대표는 “고단한 처지를 불교계
에서 알아주고 들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며 “종교계에서 사실상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적으로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 불교에서 가
장 큰 종단이 힘이 돼주겠다고 먼저 선언해줘
고맙다”고 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각 단체 대표들도 ‘차
별금지법’에 대한 종단의 관심을 무엇보다 반
겼다. 김남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발달장애 아들은 결코 가족의 보살핌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부양의
무제로 인해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 가족이 많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
다. 김운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에서 그동안 ‘송파세모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서줘 법 제정은 됐지만
아직도 현실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
지 않았다”며 “원장 스님이 ‘차별금지법’의 중
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제’ 폐
지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
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4일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역 해치마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농성장을 찾아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앞서 농성장 환권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국민과 이심전심 소통 중요”

총무원장 스님, 유승민 의원에 당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대권 출마 뜻을 밝힌 유
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사진)의 예망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
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승민·김세연·유
의동·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예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이심



은 북한하우’라는 말이 있다. 남쪽 산에 구름이
일어나면 북쪽 산에 비가 온다는 말처럼 구름
이 일어나면 북쪽에 비가 올 정도로 후보의 마
음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이 되고, 굳이

전심(以心傳心)과 ‘남산
기운 북산하우(南山起
雲 北山下雨)’를 언급하
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나라의 주인은 인연 있
는 사람이 된다. ‘남산기
운 북산하우’라는 말이 있다. 남쪽 산에 구름이
일어나면 북쪽 산에 비가 온다는 말처럼 구름
이 일어나면 북쪽에 비가 올 정도로 후보의 마
음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이 되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맺어 좋은 결과가 있거
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보
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보수도 건강하고 건
전하게 바로 서야 나라도 건강하게 잘 갈 수 있
다. 보수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 등은 이날 총무
원 예망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은퇴자 출가제도 개선안 마련한다

특위, 3월 종회 상정 목표

의견수렴…특별법 마련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암스님)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
화기념관 내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은퇴출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3월 개회 예
정인 중앙종회에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교육부장 진각
스님, 총무국장 남전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열
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은퇴출가자의 연령을
55세로 하고, 15년 이상 사회생활을한 사람 가
운데 수행과 봉사를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통해 출가의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
이 제기됐다. 이 안에 따르면 출가 후 행자의
지위가 주어지며, 행자 기간 3년 이내에 혼인
관계 등을 정리한 경우 사미(尼)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미계 수치 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구
(尼)계를 수치할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이나 주
지 취임 등은 제한되며, 교구본사와 수발사에서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특별법 수정안을 제안한 주경스님은 “사회
은퇴 이후 수행과 기도, 봉사의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포용하면서
기존 승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한다면 종단이 많은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심스

님은 “출가에 있어 가급적 나이제한을 낮추고,
문호를 더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은퇴자를 위해 종
단이 출가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월말 포교사, 법계위원회, 계단위원
회, 교육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부대중이 참여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안을 확정, 오는 3월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결의했다.

위원장 수암스님은 “은퇴출가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면
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교육불사 가람수호 템플스테이에 최선”

은해사 주지후보 돈관스님 선출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 돈관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은해사는 지난
23일 제10교구장 후보 선
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경
내 도선당에서 개최했다.



비구 스님 76명 비구니 스님 16명 등 총 92명
의 신거인단 스님 중 50여 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후보로 입후보한 돈관스님은 만장
일치로 교구장후보로 선출됐다. 돈관스님은 후
보선출이 확정된 후 인사말을 통해 “문중 스님
과 대중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고 단합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선화여교
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불사와 은해사 사찰정비
불사를 마무리하고 템플스테이 및 가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돈관스님은 일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
년 해인사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9년
3월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
지했다. 이후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학교
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종단미래 책임 각오로 열심히 정진해주길”

종단 장학승 15명 증서 수여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들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식이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 4층에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신규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들을
격려하며 “우리 종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은 총 15명으
로 국내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사찰승가
대학원 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스님들이다. 독
일 함부르크대 박사과정 혜웅스님, 영국 브리
스톨대 박사과정 효은스님, 미국 하버드대 석
사과정 세등스님, 일본 하나조노대 석사과정
향산스님, 도쿄대 석사과정 종본스님 등 해외
장학승 5명이다. 또 동국대 박사과정 국종스
님, 석사과정 자운스님, 여서스님, 중앙승가
대 석사과정 현우스님 외에 선운사초기불전
승가대학원 대산스님, 해인사유학승가대학원
수미스님과 청암사유학승가대학원 명신, 대
안, 해강스님, 봉녕사유학승가대학원 선정스
님 등이다.

종단은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들에게 해당
과정을 마칠 때까지 등록금과 연구비 등을 지
원한다. 신규 장학승에 대한 올해 지원금액은
해외 8400만원, 국내 1850만원, 사찰승가대학
원 1200만원으로 총 1억1450만원이 지급될 예
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22차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제22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
- 안 건 : 1. 보고의 건
2. 2017년 장·단기 사업계획의 건
3. 2017년 사업 예산 심의·의결의 건
4. 제10차(3.22) 총회 안건 심사의 건
5. 운영위원 증원의 건
6. 종무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7. 기타
- 특 강 : 박광서교수 ‘오늘의 시대정신과 불교지도자의 역할’
- 담당 및 회신처 : 종무소 tel (02)3411-8103, fax (02)3411-8108
- 접심공양 시간 : 오전 11:30부터 회의시작 전까지 가능합니다.

불기2561(2017)년 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해원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식, 종송, 향수해례, 삼보통칭, 종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에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